

# 세 후보 모두 무소속 ... 치열한 3파전 양상

## 신안군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3선이 유력했던 현직 군수의 갑작스러운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신안군은 전직 군수와 고위 공직자 출신 2명 등 무소속 후보 3명이 그야말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조직력과 노하우가 장점인 고길호(69) 전 군수가 조금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승규(58) 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과 남상창(63) 전 진도군 부군수 등이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3파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신안군 압해읍 한 식당에서 만난 50·60대 여중업원 5명은 모두

## 현직 불출마로 '무주공산'

### 전 군수 vs 행정가 세대결

“말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우리 같은 서민 행거주는 후보를 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50대 이하에서는 ‘새로운 인물론’이 일부 먹혀들고 있다.

귀향 6년째를 맞고 있는 김모(57)씨는 “역대 군수들 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 아니냐”며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도 가져 오고 뭔가 참신한 사람이 군수가 돼야 한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바지락은 식당에 팔기 위해 읍내에 나온 이모(65)씨는 “아무래도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낫다”며 “갑수록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과 비대위원, 당원들이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되고 후보의 세가 커졌다. 그러나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주수까지 서울로 옮긴 박우량 군수가 김 후보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지역민에게 발송하면서 세 대결 양상도 엇보인다.

각기 자신의 출신지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격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신안의 유권자는 3만9500명으로, 투표

율(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76.8%)을 감안할 때 1만3000~1만5000표 정도가 안정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이 자신의 출신지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선전한다면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 후보는 임자도(유권자 수 3123명)와 지도(4524명), 김 후보는 압해도(6048명), 고 후보는 도초도(2716명)와 비금도(3515명)를 자신의 거점이라고 여기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남·김 후보는 ‘능력 있고 검증된 행정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바닥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 ■신안군수 후보

			
정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남상창(63)	김승규(58)	고길호(69)
경력	·전 진도부군수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신안군수

28일에도 지도 장남에 두 후보는 동시에 찾아가 유세를 벌였다. 반면 고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다. 두 후보가 노련한 전직 군수를 얼마나 따

라잡을 수 있을지가 신안 선거의 불거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1% 이내 초박빙 ... 투표함 열기 전엔 아무도 몰라

## 영암군수

영암군수 선거는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동평 후보와 현직 군수인 무소속 김일태 후보가 막판까지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 최영열 후보도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를 일궈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판세는 안개속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8일 목포MBC가 목포·영암·장흥지역 유권자 2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4.4%) 결과 무소속 김일태 후

## 3선저지 vs 일꾼론 충돌

### 연설원 폭행 막판 쟁점

보가 37.9%, 새정치민주연합 전동평 후보가 37.3%의 지지율로 불과 0.6%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무소속 최영열 후보는 10.5%의 지지율에 그쳐, 다소 힘에 부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인 선거 구도는 '3선 저지'와 '일꾼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전동평 후보와 최영열 후보가 현직 군수

인 김일태 후보의 '3선 저지'와 '영암의 변화'를 주장하며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데 맞서 김일태 후보는 지난 8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다.

전동평 후보는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김일태 후보의 3선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69세의 과거형 군수로는 영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황주홍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중적인 지원 유세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전 후보의 정치적 중립감과 친화력이 2%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는 것이 부담이다.

김일태 후보는 8년 동안 구축한 단단한 지역 기반을 근간으로 지지세를 확대하며 사실상 역전에 성공했다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배제된데 대한 부정적 인식과 3선에 대한 피로감도 높아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맞서는 최영열 후보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조직과 착신의 영향을 받아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최 후보는 자체 분석 결과, 영암을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삼호면에서 선전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영암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이름	전동평(53)	김일태(69)	최영열(51)
경력	·전 전남도의원	·영암 군수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한편 영암군수 선거 유세 도중 발생한 전동평 후보 연설원 폭행 논란도 막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 후보 측에서는 김일태 후보 운동원이 거리 유세를 마친 자

신 측 후보 연설원을 폭행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지지층 양분 ... 10% 안팎 부동표가 승부 가른다

## 영광군수

영광군수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정기호 현 군수와 무소속 김준성 전 영광군의 회 의장이 팽팽한 승부 속에서 10% 안팎의 부동층의 선택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대 1 승부를 펼치고 있는 영광은 일부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가 2~3% 차이로 엇지락뒤치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남의 격전지로 손꼽힌다. 지지층이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어 부동층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28일 공개된 정기호 현 군수의 형과 김준성 전 의장이 나눈 대화의 녹취

## 후보 사퇴 대화 녹취록

### 성명서 싸움으로 번져

록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광군수 선거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여론조사에 따라 1위 후보의 얼굴만 달라질 뿐 1~2위간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부동층의 비율도 여론조사에 따라 5~10%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후보가 뚜렷하

다는 뜻이다.

특히 지지층이 엇비슷해 부동층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군수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영광군수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선거전도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뜨거운 것으로 예상된다. 박빙의 승부 속에서 선거 당일까지 한 명이라도 부동층을 더 거느린 후보가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는 연일 거리 유세를 통해 표밭을 다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등의 지원 유세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 쟁점이 뚜렷하다.

그동안 범성내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매입 의혹, 대마산단 조성 과정의 채무보증, 예곡엑스 피해 문제 등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영광군청의 사업들이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준성 후보 측에서 “정기호 후보의 친형이 지난 3월 말 김 후보를 만나 ‘요양병원 위탁 운영권 등을 준다’면 정 후보가 사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선거판이 더욱 뜨거워졌다.

김 후보 측은 “자신들의 사퇴를 놓고 조건을 내걸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를 선거 쟁점화하고 있다.

반면, 정기호 군수 측도 반박성명서를

## ■영광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이름	정기호(59)	김준성(62)
경력	·영광군수	·전 영광군의회 의장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군수 측은 “(정 군수와 무관한 정 군수의 형인) 개인 사업자와 군수에 눈이 먼 추악한 정치인의 야합의 미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영리를 추구하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끝장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준성 후보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판세의 불리함을 느낀 마지막 몸부림이

다”고 일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 59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14. 6.10(화) ~ 6.13(금)

**개요 | 작품 공모 |**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4년 6월 25일(수)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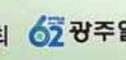
**참가 |**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사)아시아문화 협찬 

후원 